

‘주주 주머니 털어 투자?’… 잇단 유상증자에 뿔난 개미들

한화에어로, 3.6조 유상증자 발표
주가 급락, 계열사 주식도 ‘흔들’
“대규모 영업흑자 속 납득 어려워”

삼성SDI, 2조 규모 유상증자 공시
주가 6% 하락… 투자심리 위축
“상법개정 의식한 결정 가능성도”

한화에어로로스페이스·삼성SDI 등 대기업의 잇따른 유상증자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주주 주머니 털어 투자에 나선다’는 비판도 나온다. 회사채 발행이나 은행 대출 등 이자를 부담하는 방식 대신 주식 시장에서 기존 주주 지분을 희석하는 손쉬운 방식을 택한다는 비판이다. 시장의 냉담한 반응에 주가도 시들해졌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한화에어로로스페이스는 62만 8000원에 마감했다. 지난달 19일 장중 77만4000원까지 상승했던 주가는 3조 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자 급락하기 시작해 이날까지 17%(종가 기준) 떨어졌다.

한화에어로로스페이스는 지난 20일 3조 6000억원어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



손재일 한화에어로로스페이스 대표가 지난 25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화에어로

했다. 이 회사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국내외 투자를 진행”하면서 “유럽, 중동,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미국 등지에 전략적 해외 생산 거점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며 국내 증시 사상 최대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내놨다. 전체 유통 주식의 13.05%에 해당하는 595만500주를 주당 60만5000원에 발행한다는 것이다.

한화, 한화시스템, 한화솔루션 등 한화그룹 다른 계열사 주식들까지 흔들리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과 주주들 사이

에서는 대규모 영업흑자를 올리는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동익 KB증권 연구원은 “매년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현금흐름만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투자 규모임에도 대규모 유상증자를 선택한 것은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주가 폭락과 주주들의 반발에 직면하자 총수 일가 쪽을 비롯한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다. 한화에어로로스페이스는 23일 김승연 그룹 회장의 큰

아들인 김동관 전락부문 대표이사가 약 30억원어치의 주식을 매입한다고 밝혔다.

삼성SDI 역시 지난 14일 2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는데 주가가 6% 넘게 하락했다. 회사는 이 자금을 설비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향후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며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다. 은행 등 금융회사 등에서 빌리거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은 모두 이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유상증자는 주식시장을 통해 이자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대신 부담은 기존 주주가 지게 된다. 지분 희석에 따른 주가 하락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대출 금리도 오르고 채권 발행도 어려운 상황에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기업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투자자는 온라인 종목토론포방에 “결국 개미 호주머니 털어 투자하고, 대주주 주머니를 채우려는 것 아니냐”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유상증자 발표가 논란으로 번진 사례

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고려아연은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기습 발표했지만, 당시 경영권 분쟁 중이던 상황에서 주가는 하한가로 직행했고, 금융당국의 정정신고서 요구 끝에 계획이 철회됐다.

잇단 유상증자 발표를 두고 시장에서는 상법 개정을 앞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협회 대표는 “유상증자 자체가 부정적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시기적으로 상법 개정을 의식한 결정일 가능성도 있다”며 “경영진이 법 개정 전 유상증자를 마무리하려 한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유상증자가 기존 주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결정과 명확한 자금 활용 계획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일부 기업들이 상법 개정 전에 유상증자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배경에는 편법 승계나 지배구조 강화를 위한 목적이 있을 수 있다”며 “주주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업의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원래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BK, 유동성 없이 공수표… 회생안 거짓말”

흡플러스 회생안 신뢰도 논란
금감원·신영증권 “이익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 국민 불신은 당연”

흡플러스의 회생절차 추진을 둘러싸고 ‘신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전단체(ABSTB) 전액 변제 방침과 함께 사채 출연 가능성까지 언급했지만, 금감원과 주요 채권자인 신영증권은 여전히 회생안의 실효성과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MBK파트너스의 전단체 변제 계획을 강하게 비판하며 신영증권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그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MBK가 유동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공수표를 날리고 있다”며, “실제로 갚을 수 있는 계획이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MBK의 대응 방식에 대해 “자기 뼈가 아닌 남의 뼈를 깎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구조조정 손실은 사회에 전가하면서, 운용사인 MBK는 수수료만 챙긴 채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원장은 “MBK 같은 GP(사모펀드 운용사)는 펀드 수익과 무

관하게 막대한 연간 관리 수수료를 받는다”며, “대기업 총수 못지않은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고 있다. 국민의 불신은 당연하며, 금감원도 같은 불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태영건설 등 워크아웃 사례에서 시장이 신뢰를 보낸 건, 대주주가 고통을 분담했기 때문”이라며, 흡플러스 사례와의 차이를 부각했다.

신영증권도 흡플러스 측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앞서 흡플러스는 지난 20일 법원 주재 ‘매입채무 유동화 절차 협의회’에서 신영증권이 회생절차에 참여하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영증권 관계자는 “투자목적회사(SPC)의 수탁관리인 자격으로 회생절차에 합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우리는 정식 초청도 받지 않았고, 카드사 참조인 자격으로 참석해 내용을 청취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협의회 자체에 사전 연락도 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신영증권은 흡플러스 측이 제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변제

계획, 채권자 동의, 상환 재원 등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감독당국과 주요 채권자가 모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회생계획의 법원 인가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흡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회생법 제218조에 따른 ‘평등의 원칙’에 따라 금융채권과 거래채 권을 공정하게 변제해야 한다. 단, 사업 지속에 필수적인 중소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 동의를 전제로 우선 변제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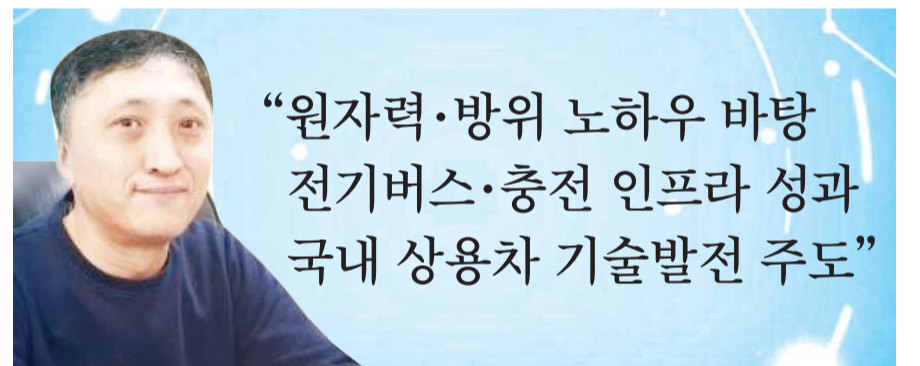
핵심 변수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다. 메리츠는 흡플러스에 1조 2000억 원을 빌려준 담보권자로, 전체 금융채권의 과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통과하려면 담보권자의 75% 이상 동의를 필요로 하지만, 사실상 메리츠가 거부권을 쥐고 있는 셈이다. 담보권을 실행해 자산을 회수할 수 있지만, 그 여파가 흡플러스 직원과 입점 업체 등 이해관계자에게 미칠 수 있어 선부른 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현대차증권, 3대 신평사 신용등급 ‘AA-’

현대차증권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국내 3대 신평평가사(한국기업평가·한국신평평가·NICE신평평가)로부터 신용등급 ‘AA-(안정적)’ 유지 및 자본적정성 등 전반적인 지표 개선 전망 평가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현대차증권이 유상증자로 인해 위험투자 확대로 저하됐던 재무건전성 지표가 상당부분 회복되며 신용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자본완충력 확대에 힘입어 자산건전성 지표가 소폭 개선될 전망이라

고 덧붙였다. 한국신평평가 또한 현대차증권이 위험인수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익 누적과 상황전환우선주(RCPS) 및 후순위채 발행, 유상증자 등 적절한 자본확충으로 자본적정성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2024년 9월 유상증자 이전에도 순자본비율 479.2%, 조정 영업용순자본비율 236.3%로 자본적정성이 양호한 수준이었다. /신하은 기자 godhe@



코스닥 CEO 인터뷰

김만용 피라인모터스 대표

“전체 매출 90% 전기버스가 차지
충전기와 원전·방산 각각 5% 기여
시기관분 끼임 방지, 차별화 포인트”

“국내 전기 상용차 시장의 다변화와 기술 발전을 주도해 글로벌 e-Mobility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전기버스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피라인모터스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만용 피라인모터스 대표는 “원자력 및 방위 산업에서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기버스와 충전 인프라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피라인모터스는 지난 2003년 설립 이후 원자력과 방산 분야에서 계속제어 제품과 전원공급기를 개발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아왔다. 특히, 원전 산업에서 최고 안전등급인 Q-Class를 확보하며 신뢰를 쌓아왔다. 김 대표는 “축적된 기술력을 더 넓은 산업에 기여하고자 2016년 전기차 충전기 개발에 착수했다”며 “이후 전기버스 제조와 충전 인프라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설명했다.

현재 피라인모터스의 주요 사업은 전기버스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이다. 전체 매출에서 전기버스가 차지하

는 비중이 90%에 달하며, 충전기와 원전·방산 분야가 각각 5%씩 기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전기버스 시장에서 차량과 충전 플랫폼, 관제 및 정비 플랫폼을 통합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며 “고객의 요구를 신속히 반영하고 사후 관리와 운영 편의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피라인모터스의 경쟁력은 독자적인 기술력과 고객 중심의 설계에서 나온다. 김 대표는 “AI 기반의 문 끼임 방지 기술과 국내 최초로 버스 내 USB 충전구를 설치한 점이 큰 차별화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고객의 요구를 빠르게 파악하고 제품 사양과 기능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 회사의 가장 큰 강점”이라며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CS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고객을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기술 혁신과 고객 중심 접근 방식은 피라인모터스가 국내 전기버스 시장 점유율 2위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경영 철학에 대해서는 “품질 제일, 현장 중심, 동반 성장”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처음 전기버스 사업을 위해 협력을 찾아가 어렵게 계약을 성사시킨 일기가 장 기억에 남는다”며 “아무도 전기버스 시장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시기였지만, 우리가 가진 기술력과 진정성을 믿고 도전한 덕분에 지금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kdh@